

부인 위장전입은 즉각 인정, 아들 병역문제는 적극 해명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날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검증 무대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연맹, 바른정당 등 야권이 팽팽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며 검증에 나섰다.

이를 반영하듯, 여당인 민주당은 정책과 국정운영 구상 위주의 검증을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그간 버려온 '숨겨진 검증' 기조로 파상 공세를 펼쳤다.

이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결과는 국회의 협치 및 대결 구도 형성의 시험대가 되는 것은 물론 여권에는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야권은 정치적 존재감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이날 이 후보자는 여야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술 교사였던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부인이 강남 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설명한 뒤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며 "처참하다"고 말했다.

위장 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후보 시절 밝힌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 공약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어제 탈루로 병역이 면제된 아들에 대해 이 후보자는 "뇌 수술을 받은 뒤 (입대를) 포기했다"며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野 파상 공세에 與 정책 검증

"5·18 발표명령자 전두환 추경

'위대한 영도자' 표현 부끄러워

"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식의 몸이 자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비로서 아프다"며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또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이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 대해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을 인용하거나 홍보 기사를 썼다고 지적한 데 대해 "땀땀하지 않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전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것처럼 내란죄의 수괴였다"며 5·18 민주화 운동의 발표 명령자도 "그분(전 전 대통령)이라고 많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 이후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제도나 관행을 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사람을 겨냥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분이 적폐로 분류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책임 총리제와 관련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참여정부 시절에 성공적으로 뒀던 모델을 한번 생각해보자. 책임총리제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참여정부 시절 모델'은 2004년 8월 16일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와 책임장관 등 국정운영 주체별 역할을 나누는 '보건형 국정운영' 모델로 해석된다.

특히, 이 후보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선 등을 문 대통령과 사전 협의한 사례로 들었으며 다음 단계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 문제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 의미에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로 7년째를 맞은 '5·24 대북제재'의 해제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을 배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년만에 공수 뒤바뀐 청문회... "낮설지만 정권교체 실감"

민주당 방어에 주력

한국당 자료미제출 맹공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9년 만에 역할이 바뀐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여야는 24일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총리로서의 자질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인 만큼 야당 측의 공세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데 주력하면서 정책과 국정운영 구상 위주의 검증을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문제 등을 거론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야권의 공격이 이미 언론에 거론된 문제 외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 중대분 하자가 아니어서 맥이 빠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9년 만에 공격수가 된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아들 병역 의혹과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세를 집중했다. 한국당 측 인사인 경대수 의원은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 자료 제출을 철저히 거부했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사실 저희가 청문회 참석하느냐 말하느냐가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발목을 잡지 않으려고 돌아왔다"며 "경 의원이 지적한 것은 역대 총리와 장관들이 제출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감싸는 데 주력하면서 정책과 국정방향 등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우선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

해 민주당 간사인 윤호덕 의원은 "자녀나 며느리, 제삼자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역대 총리님들도 저희가 인사청문회 할 때 자료제출을 안 해서 저희 야당이 분통을 터뜨린 게 많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회와 지방정부 부를 아는 분이 총리에 지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선택"이라며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해 '해도 너무 잘한다'는 평가가 있다. 심부름꾼 인상을 주니까 박수를 보는데 총리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니가 정말 여야가 바뀐 사실을 실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너그러운 '남종화 산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185) 운림산방

지난 주말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시민대상 교육행사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한 남종화의 원류를 찾아 떠나는 남도기행을 다녀왔다. 강진 백련사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해남 녹우당과 남종화의 성지라 할 진도 운림산방을 탐방하면서 새삼 '예향'의 근원인 우리 남도 땅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진도군 의신면 침철산 아래 자리한 운림산방(雲林山房)은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였던 소치(小痴) 허련(許鍊·1808~1893)이 만년에 기거했던 곳

다. 어린 시절 그림에 재능이 많았던 소치는 해남 대흥사 초의선사의 배려로 녹우당 공재 운두서의 유자와 화보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고, 추사 김정희를 만나 서화수업을 했다. 그림으로써 천하를 주유했던 소치는 50세에 운림산방으로 귀향하면서 이후 그곳으로부터 미산 허형, 남농 허건과 허문, 방계손인 의재 허백련 등 남종화의 거대 화맥을 형성하였다. 소치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래 방치되었던 운림산방은 손자 남농 허건이 복원해 오늘에 이른다. 휴일이기도 했지만 남종화의 산실인 운림산방을 찾은 방문객이 줄 잇는 모습도 반가웠다. 소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선면산수화'(1866년 작)는 주산(主山)을 중심으로 두고 아련하게 보이는 먼 산이 뒤를 두르고 있으며 전경에 집과 나무 언덕이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단아한 부채그림이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너그러운



허련 '선면산수화'(1866년 작)

자연 속 은거지로 돌아가는 높은 선비의 모습이 부럽기만 하다. 여백 가득 당나라의 선비 당경(1071~1121)의 '산정일장(山靜日長)' 전문이 추사체로 쓰여 있는데, 높은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한 선비가 자연의 품에 안기어 소박한 삶을 즐기며 늙어간다는 내용으로 선비의 이상향을 담은 내용이다. 소치는 '산정일장'의 이상향을 운림산방에서 구현해보고 싶었던 것일까. 그림 속 산수화의 풍경과 소치가 직접 연못을 파고 정원을 가꾸며 나무를 심었던 운림산방의 낮은 모습이 겹쳐 보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www.joytour.kr

무안출발 일본여행

이 가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친 특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일본여행
이제 무안에서 출발하세요~!

<주말 출발> 항공 왕복 2박3일 큐슈여행 ♪ 기간: 5.12~6.6

1. 뱃부, 유후인, 아마가세 온천편선	1인 ₩499,000~
2. 뱃부, 유후인, 일본 전통료칸	1인 ₩699,000~
3. 기타큐슈, 야마구치, 시모노세키	1인 ₩699,000~
4. 기타큐슈, 가라츠, 우레시노	1인 ₩699,000~

<평일 출발> 선박+항공으로 떠나는 큐슈여행 ♪

1. (매주 수요일 출발) 선박+항공 북큐슈 3일	1인 ₩299,000~
2. (매주 화요일 출발) 선박+항공 북큐슈 4일	1인 ₩399,000~

★불포함사항 : 기사, 가이드 경비(₩30,000/인), 국내수송(₩35,000/인)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JOY TOUR CO., LTD** **조이투어**

TEL: 062-234-3222 FAX: 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대표이사 최금환

여행비인기, 여행저렴,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전철버스 / 상의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보험 가입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약)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